

# 제21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개최

- 우리나라 경제·금융정책 경험 공유 및 역내 금융협력 네트워크 강화

재정경제부는 6.29.(월)~7.10.(금) 2주간, 아시아 국가 13개국\* 재무부·중앙은행 중견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 아세안(ASEAN) 8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몽골 + 중앙아시아 4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해당 연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강화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대표적인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 그간 연수를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경제·금융정책 운영 사례를 이해하고, 역내 정책당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자본시장 발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주요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금융정책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토스뱅크 등 주요 금융기관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기관 실무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연수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책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금융 분야의 상호 이해 증진과 역내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심승현 (044-215-4830)
	금융협력과	담당자	주무관	권민정 (mi te@korea.kr)

